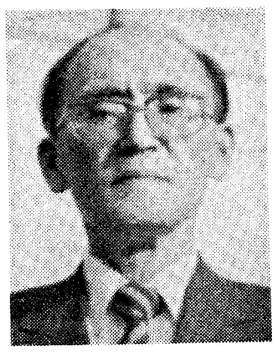
정년 퇴임 교수 인터뷰



보직에서 해방돼 소홀한 연구 지속적인 탐구로 보완

경영대학원장 권혁소교수

『대학교수의 본분은 연구하고 강의하는 것이고 명예교수로 학생들과 다시만날수 있기 때문에 정년퇴임에대한 별다른감회는 느낄수 없읍니다』며 권혁소교수는담담한어조로 퇴임의 소감을 대변한다.

경북안동이 고향인 권교수는 만주건국대학 경제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해방과더불어 고국에 돌아와 교편생활을40여년동안한 교육계의 산증인이기도하다.

본교에는 23년동안 재직하면서 인사위원회위원, 정경대학학장, 사회과학조사연구소소장, 경영대학원장을 역임해왔다.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경제·자본등 경제적인 요인만이 아닌 정치·의식·가치관능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5년 가까이 보직을 맡고있어 연구에 소홀히 했던 것을 보직에서 해방되어 개발되지 않는 한국경제를 공부하고 외국에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한국경제를 바라본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다.

교육계에 투신하여 가장 기억에 남을만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6.25이후 새로운 경제학인 케인즈 일반이론의 국내서적이 없어 대학강의에 학생들이 무척 어려움을 겪었는데 미국 모교수의 원문을 도입해 번역출판하여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한게 가장 뿌듯합니다. 지금은 케인즈 이론이 비판 단계까지 올라와 있지만 그때는 힘든 작업이었고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라며 그때 어려웠던 상황을 회상하는 權교수는 현 한국경제의 가장 문제점은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역량·수준등이 문제라며 계속적인 노력을 가해야 발전 할수 있다고 피력했다.

초기대학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교수협회장을 역임한바있는 권교수는 대학인이 이데올로기 자체를 명확히불수있는 시각을갖춰주는게 그취지였다고 피력한뒤『교육및학원문제에 부딪힐때 모든교수가 일반적으로 느끼듯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나자신에대한 책임감 역량 부족등으로 반성하지만 결코대학가 단결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과실을 얻기이전 인간적인 대화가 지속되어야합니다』며 요즘 대학생에게 단시일내에 무엇을 얻어야된다는 조급함을 가지지말고 사회발전에대해 절당적인평가를 내려서는 안된다고 당부한다.

지금의 대학은 교수와 학생은 있으되 스승과 제자는 보기 드물다고 말한뒤 섭섭한 미소를 띄우는 권교수의 취미는 등산, 여행, 바둑이며 슬하에 2남2녀를 두고 손자 다섯을 둔 다복한 할아버지이기도 하다. 지난 회갑땐 제자들이 기념논총을 펴내기도 했으며 「인플레이션과 한국경제」「1980년대의 내외경제전망」등 다수의 논문이있다. <淑>

현재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장사꾼의 약속으로 변질

약학대학학장 유경수교수

약학대학 5층, 학장실에는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약속시간에 늦어 송구스런 마음으로 찾아뵌 기자에게 초로의 유경수교수는 연륜을 느끼게 하는 미소로 편안함을준다.

『상투적이지만 담담하다는 말 밖엔 할말이 없군요. 오히려 여유가 생겨 편안하다고나 할까요』 58년부터 본교에 재직해 올해로 꼭 28년 6개월이 된다며 새삼 감회가 어린 목소리다.

『본교의 장점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비약을 위한 노력이 유별나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이 30여년의 큰 발전을 이룩했고 그 발전에는 의약관도 기여한 점이 큽니다. 그런 큰 도약을 위한 노력이 때로는 내실을 기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낳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일보다는 월등히 낫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두 걸음 진보를 위한 한 발퇴보라고 할까요』 30년간 고락을 같이 나눠온 애정이 긍정적인 말속에 배여있다.

검소하고 성실한 것을 평생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으며 과시와 「쳑」을 싫어한다는 유교수.

『한국인의 피 속에는 아직도 분명히 흐르고 있는 맥 같은 게 있어요. 인내와 성실, 그런 속에서도 꿋꿋하게 흐르는 억센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자양분과도 같은 것들이 왜곡·수용된 문화에 의해서 치즈나 버터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게 된 데 대한 책임은 분명 우리 기성세대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가진 거부의 정신을 저는 나쁘게 보지 않아요.

앞선 세대들이 못다해 준 일들, 해야만 될 일을 말하고자 하는 순수하고 치열한 정열로 생각합니다』 분명 지금 세대가 아닌 앞선 세대의 말에는 반성과 책임이 깃들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약학계의 문제점을 묻자 유교수는 『약사가 많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국이 너무 많아요. 순수한 의학정신이 변절되어 전부 장사꾼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약장사로 일관되는 것은 비단 약학뿐만 아니라 의학에서도 마찬가지죠.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죽은 시체의 약속이 돼 버렸읍니다. 진정한 의학정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급인력을 수용할수 있는 실험실과 연구실의 양적·질적 증대라는 제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등산이 취미이며 거기에는 양용식물채집이라는 중요한 목적이 포함된다. 『책을 한권쓸까합니다. 한방에서 쓰이는 생약에 관한것으로 한국천연약물에대한 것입니다.』 주위에서 「호랑이」라고 불리는데 이번에 틀니를하는 바람에 「이빠진 호랑이」가 됐다며 너털 웃음이다. 이는 다빠졌지만 일에대한정열은누구못지않다는노교수의뒷뒤로햇살은여전하다. <珠>

신임 보직교수 인터뷰

자리가 바뀌면 전임자에게는 아쉬움이, 신임자에게는 계획과 포부가 있게 마련이다. 보직에 임하는 그들의 소신을 들어본다. 정경대학장, 박물관장은 사정상 인터뷰를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발전에로의 새 주역들

경영대학원장 김 광 석 교수

시대요구에 맞는 커리큘럼 개편에 주력할 터

『경제과 평교수로서 연구에만 전념코자했는데중책을맡게되어 책임감부터 느낍니다. 나름대로 소신을갖고 최선을다할 각오입니다』 신임 김광석 경영대학원장의 소감의 변이다.

평소 알찬 강의로 평판이 나있는 김교수는 앞으로의 계획에대해서 『60년대 이후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대학원들이오늘날에는 그 한계점들을 드러내고있다』며 『구습을 기계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입니다. 현실은 끌없이 새로운 경영 기술과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을 개편하는데 주력할 작정』 이라며 피력한뒤 『세계경제라는 거대한 조류 속에서, 특히 외부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는 우리경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책을 수행해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부지리를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유가의 인하, 달러화의 약세는 불황속에 허덕이는 세계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 충분한여건을 조성하고 있읍니다. 이런때 내실을 기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 참고자료, 시대적 상황이 모두 어려운 시기에 수학을 해야했던 김교수는 이런면에서 객관적 조건이 좋은 시기에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기대가 크다고.

평안북도가 고향인 김교수는 48년 월남하여 용산고를 거쳐 57년 본교 경제과를 졸업 고려대 대학원, 미국 윌리암즈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프린스톤대 연구교수,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등 주로 연구직을 역임해왔던 학자답게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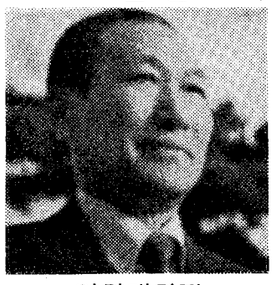
우리나라 대학원과 선진 외국 대학원들과의 차이점은 『외국의 대학원들은 전문적 지식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존 경영자들의 재교육수준에 머물러있는 실정』 이라고 분석하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끌려가거나 밀려나기만 하는 단계에서 앞서가는 수준으로 변신 해야할 시기이며 이런 의미에서 특히 학자들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 중요시된다는 경각의 일언도 잊지 않는다.

좌우 전문서적으로 꽉 메운 김교수 연구실, 한마디 한마디 조리있게 이어가는 이야기를 통해 평소의 생활을 짐작하고도 남았다.

자신의 전공인 국제경제학을 계속 연구해 하나의 완성작을 만들어보는 것이 유일한소망이라 말하는 김교수는 건강을 위해 등산을 즐긴다.

슬하에는 2남1녀를 두고있으며, 시간이 없어 교회를 자주 못나가는 형편이라 부인에게 자신의 몫까지 믿음을 부탁하고 있다며 조용히 말끝을 맺는다. <基>

인간교육을 통한 인간완성에 역점



약학대학장

김 수 억 교수

지난 20일 신임 약학대 학장 김수억 (약학) 교수를 만나보았다. 다음 내용은 金학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먼저 약대학장으로 취임 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취임 소감은

—무거운 짐을진것 같읍니다. 하지만 기왕 중책을 맡았으니 열과 성의를 다해 본교의 발전을위해열심히노력하겠읍니다.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는

—약학대학인만큼유능한약사의 배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충·효사상을 기반으로 한 인간교육에 역점을 두어 교육에 임하겠읍니다.

▲현 우리나라 약학교육의 문제점과 지향 방향은

—우리나라 약학교육은 물질에 관한 교육 즉 물질분석및 화합, 합성 위주의 교육을 해왔으나 이제부터라도 환자에게 효용성있게 약을 투입하고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물질보다 환자중심의 약학교육을 임상약학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약학교육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약력은

—1923년 평양에서 삼형제중 막내로 태어나서 일본명치약학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69년서울대 대학원에서 「α-Picoline 銅(11)에 의한 Baribital 류의 착화합물및 그의 약품분석 화학적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읍니다.

▲본교에서 교편생활은 언제부터인지

—지난 70년 3월부터 본교 약학과에서 지금까지 16년동안 재직하고 있죠.

▲교육 생활의 보람 이라면

—후진을 양성, 사회에 필요한 일꾼을 배출 하는데 있으며, 지금까지 현재의 생활에 후회를해본적은 한번도 없읍니다.

▲좌우명이 있으시다면

—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 재물을 잃는것은 적은 것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것은 조금 큰 것을 잃는것 이지만 건강을 잃 것은 가장 큰것을 잃는 것입니다. 역시 건강이 중요하지요.

▲경희인에게 당부 하시고 싶은 말은

—어느 학교든 학교마다 정신이 있듯이 모든 경희인은 경희정신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본교의 발전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정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繩>

사랑과 이해의 사제간 선행돼야

자연과학대학장

민 영 기 교수

『학과일도 바쁜데 책임이 큰 학장직까지 맡게 되어 더욱 어깨가 무거워지는군요』 라고 첫 소감을 말하는 민영기교수의 표정은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는듯 신중하기만 하다. 작년 9월부터 본교에 옮겨 와 조경철 교수와 천문학을 강의하던 閔교수는 조교수의 사퇴로 그후 혼자 학과일을 보다 이번에 보직발령을 받게 되어선지 더욱 책임감을 느끼는 듯 하다.

『특히나 자연과학은 순수기본학문을』 연구하는 분야이므로 마음놓고 토론, 실험할수 있는 시설 보완이 필요합니다.『따라서 다양한 실험실습기재를 비치하여 학생들이 마음놓고 연구할 수 있는 부대시설보완이 가장필요합니다』라며 학교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해 본다.

교수충원문제에 대해서는『자연과학대 대부분의 학과가 교수가 부족한 형편이므로 매년마다 각과에 적어도 한명씩 보충해 나갈 방침입니다』라고 하며 『학생들도 학교측과의 최소한 마찰을 줄여 주준한 대화로 서로의 생각을 절충해나갔으면 합니다』라며 학생들에 대한 부탁의 말도 잊지 않았다.

전파천문학을 중심으로 은하계구조와 별과 별사이의 물질 연구를 30여년동안 연구해 온 閔교수는 『우주과학의 경우 앞으로 발전할수 있고 또 개발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학생들의 탐구적인 의욕이 필요하며 또한순수학문에대한 연구가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관심도 절실히 요구됩니다.』인기과목에만 교수의 연구가 몰리는 것보다 고른 학문 연구가 아쉽다고 안타까워 하며 이를 위해선 일관성있는 연구, 사리와 타협하지 않는 초지일관의 교수자세도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요즘 학교의 사제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의 엄격하고 준엄한 스승의 상을 바란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지금같은 교수와 학생들이 결별된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학생은 언제라도 교수에게 찾아가 어려움을 말할수 있고, 교수 또한 그 어려움을 언제라도 해결해주려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며, 화목한 사제관계를 주장하는 閔교수에게서 뿌듯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한가할때는 등산으로 심신을 단련하며 시간을 보낸다는 閔교수는 1938년 서울서 출생해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렌슬러大 천문학박사학위를 취득, 국립천문대장을 지낸 바 있다. <茂>

졸업, 그것은 또다른 시련의 출발점

졸업유감

다시 일어서려는 우리에게 용기의 박수를

찬란한 세상의 유혹을 받으며 태어난 모습 그대로 되돌아 걸어가듯 하얀 눈이 가녀린 가지 위에 여운을 남기고 젖어있을 때, 두 손을 주머니에 푹 감추고 캠퍼스를 걸어 들어 온 4년전의 촌스런 모습을 하나도 떨쳐버리질 못하고 덮수룩한 머리만을 아래로 향한채 끈적끈적한 정을 도려내며 나가야 하는 모습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 잘못된 경쟁으로 침몰된 사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참 모습을 찾아보고자 애썼던 일은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니고 또 다른 세계에 도전하기 위해 비록 출발이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부딪쳐 보리라는 생각만이 한발을 딛게 하고 다른 발을 앞으로 들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

대학의 낭만과 꿈의 본체를 현실의 눈으로 일찍 깨뜨릴 수는 있었으나 결코 행동화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과정이 그랬다기 보다는 결과가 뻥뚫린 넋나간 두눈에 너무 크게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회가 뒤따르더라도 나름대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극히 주관적인 생각때문이다. 인간은 혼자 있기를 무척이나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을 그리워한다. 수많은 생각으로 세포가 말라들어가도 고함산을 밟아보고 싶은때가 있고 입이 부르터 음식이 넘어가지 않더라도 나팔부는 선녀들에게 해야할말을 뱉는때도 있다.

이해타산이 컴퓨터처럼 치밀하게 돌아가는 현실에서 조금은 보호를 받을 수있었던 것은 대학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울타리 안에서 구체적인미래의 계획을 하고 공부에 열중하며 대화를 하도록 허락을 받았던 것이다. 이것이 사회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긴박한 느낌을 주고 아찔한 현기증을 일으키게 하지만, 뒤돌아 나가는 사람들의 두터운 외투속에서 그리고 충혈된 눈을 가린 안경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열기로 가득 찬 도서관의 창문을 통해 빛나는 별의 인도를 받아 까아만 캠퍼스의 나무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을 찾으며, 잡히지 않는 것을 잡으려 몸부림치던 연약한듯 끈질긴 인간의 모습은 아무데서나 볼 수는 없다. 잘못된 사회의 제도 속에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해 균형을 잃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젊은이다운 책임의식을 품고 입을 벌려 호소하고 몸을 던져 생명까지도 바친, 우리들의 친구를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울렁이게 하였고 고통의 리듬을 깨뜨리고, 허공을 향해 주먹질하기보다는 눈을 감고 낙엽을 가르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것을 가르쳐 주었다. 부모가 인정해 주며, 사회가 보호해 주고 스스로가 믿을 수있는 사랑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도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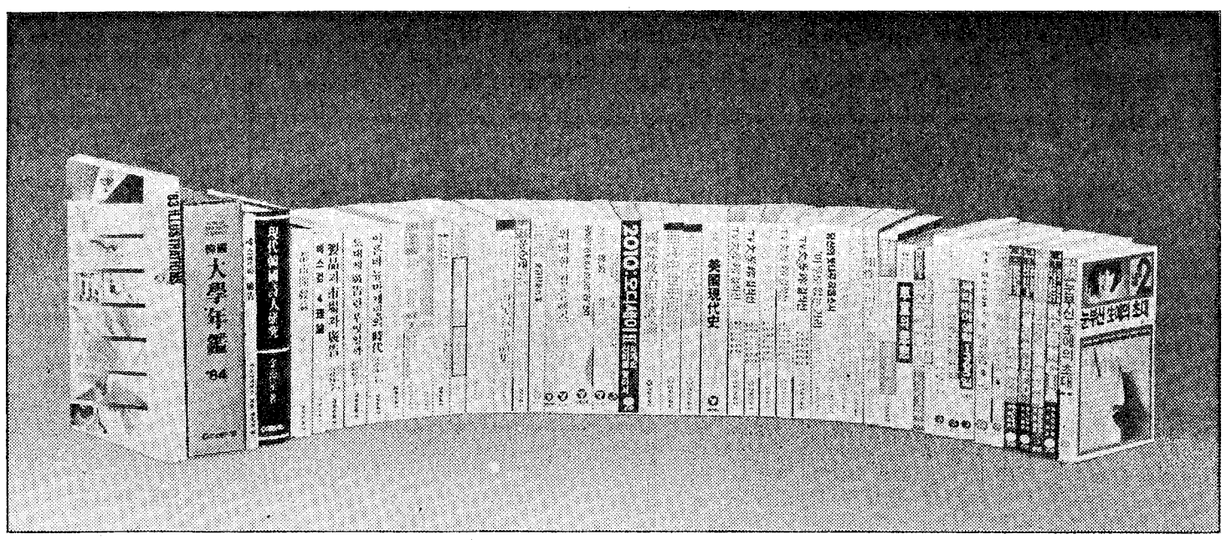
몇 밤을 새우며 4년동안 달려온 고르지 못한 철로를 뒤돌아 보면 눈물이 쏟아져 시야가 흐려짐을 나는 감당할 수없다. 결국은 이렇게 나가야 할 날이 올줄을 알면서도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싶었었다. 빼어 내어도 남아있는 못자국처럼 지울 수 없는 모습과 용서 받을 수 없는 일들을 만든 것은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다. 자아의 벽을 높이 쌓고 스스로 꺼리끼면서 교수님과 만나기를 게을리 했고, 친구들과 더 많은 고통과 웃음을 갖지 못함은 무관심과 결핍된 사랑, 그리고 메마른 감정때문이었으며 늘 안으로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내 영혼의부끄러움 때문이었다.

이런 모습을 싫어하지도 않고 하루하루 하늘을 향해 치솟던 나무들은 격려해 주었다 하얀 눈으로 덮여 아름답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속에서는 새생명을 탄생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아무도 모르는 고통도 참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지금까지 전후좌우에서 통행했던 분들은 제가 빛을 갚아야할 분들이다. 교수님, 선배님,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빚을 갚는 의무를 잊지 않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마지막 기말고사를 끝내고 취직이 되지 않아 이력서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목표잃은 화살을 뒤쫓아 방황하던 2달간의 모습을 이제는 정리하고 싶다. 불합격 통지서를 받는 순간 조금더 성숙한 자신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고 더욱 사랑할 수 있었다. 다른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통과 남들의 눈이 이미 상처로 인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폐부를 또 뚫더라도 이겨내야 할 것이다. 표적을 다시 바라보고 온 힘을 다해 쏘아 올려야 할것이다.

정책과 제도가 씁쓸함을 남길지라도 그것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임을 서로의 가슴에 새기고, 가시넝쿨이 가로막고 불신이 좌절하게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려고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부여잡고 가쁜 호흡을 하는 모든 우리들에게 용기의 박수를 보내주시지 않으시렵니까.

박 옥 선
<영교·85학년도 졸업>



대학문화사는 現実과 理想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대학문화사 354-9935
354-9936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98-2

대학문화총서

1. 매스컴과 廣告
   커뮤니케이션 調査硏究所 編 • 값 4,500원
2. 매스컴 4理論
   F.S시버트, T.A.피터슨, W.슈람 共著
   李圭鎭, 韓炳九 共譯 • 값 4,600원
3. 도대체 廣告란 무엇인가 무엇일까
   참즈 Y.양 著
   리대용, 金忠起 共譯 • 값 6,000원
4. 이론바 뉴마케팅의 時代
   참즈 Y.양 著
   리대용, 金忠起 共譯 • 값 6,000원
5. 製品과 市場과 廣告
   참즈 Y.양 著
   리대용, 金忠起 共譯 • 값 6,000원
6. 로마帝國은 왜 멸망했는가
   池東植 編譯 • 값 4,600원
7. 西洋古代史槪論
   Michael Cheilik 著
   高麗大 大學院 古代史硏究室 譯
   池東植 責任監修 • 값 4,600원
8. 西洋中世史槪論
   Walther Kirchner 著
   高麗大 大學院 中世史硏究室 譯
   池東植 責任監修 • 값 4,600원
9. 國際政治經濟論
   존 E.스피로 著
   申正鉉 譯 • 값 6,000원
10. 都市開發論
    한원택 著 • 값 8,000원
11. 佛教에로의 접근
    佛教新聞社 編 • 값 3,800원
12. 대만 VS 한국 경제 비교
    니시무라 도시오 著
    차병각 譯 • 값 3,600원
13. 美國現代史
    프랭크 프라이덴, 알렌 브린클리 共著
    朴武成 譯 • 값 7,500원
14. 소련의 興論
    알렉스 인켈스 著
    이규종 譯 • 近刊 값 4,500원

대학문화문학선

- 사랑하지 않는 죄
  문순태 著 • 값 3,000원
- TV 문학관①
  김동리外 • 값 3,000원
- TV 문학관②
  황순원外 • 값 3,000원
- TV문학관③
  이광수外 • 값 3,000원
- TV 문학관④
  김동인外 • 값 3,000원
- TV 문학관⑤
  서영은外 • 값 3,000원
- 아무도 없는 거리
  조건상著 • 값 2,800원
- 바늘구멍으로 본 세상살이
  윤흥길著 • 값 2,600원
-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병주著 • 값 3,000원
- 말이 있는 팬터마임
  정한숙外 19 • 값 3,800원
- 위대한 컴플렉스
  이규동著 • 값 3,200원
- 지루한 전쟁
  프랑스와즈 사강著
  권오룡 옮김 • 값 2,500원